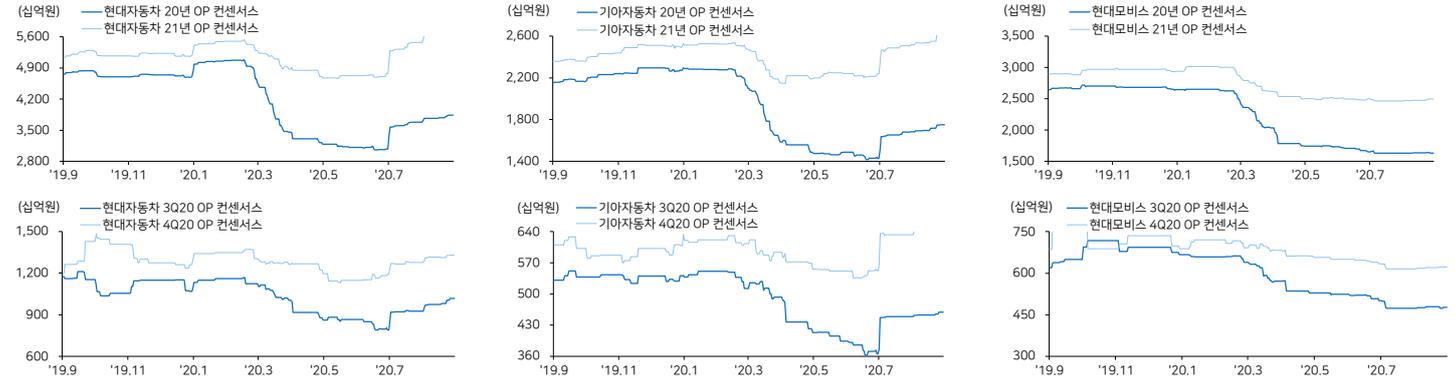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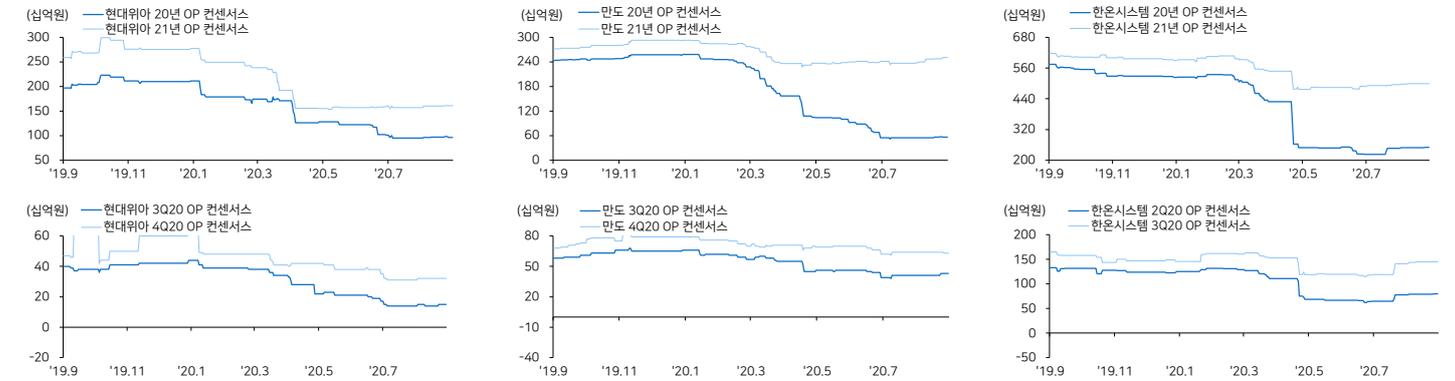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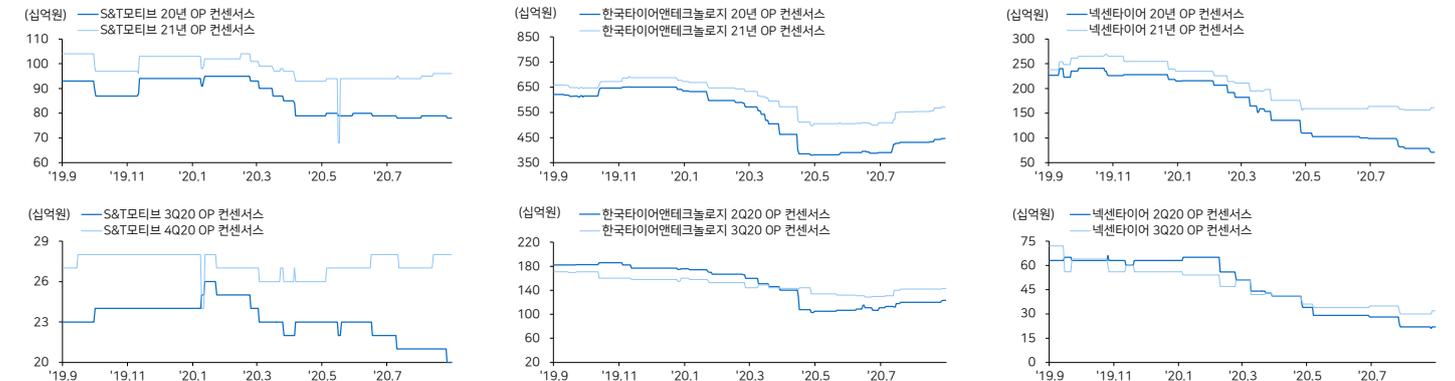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해외인재 영입 속도 (내일신문)

현대차그룹이 해외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수석·전기자, 디자인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서임. 자동차 제조기업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중.
<https://bit.ly/3mXPcVl>

현대차 노조, 임금 동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시작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립원 찬반투표가 시작. 현대차 노조조합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전체 조합원(5만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돌림. 노조는 전국에서 투표함이 도착하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개표할 예정.
<https://bit.ly/3iZPMNy>

현대차 생산 멈추게 한 '와이어링 하네스' 리쇼어링 추진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해외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와이어링 하네스, 비접촉식 체온계, 수액세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명·품질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https://bit.ly/306uVAw>

폭스바겐, 1호 순수 전기 SUV ID.4 공개...1회 충전 유행기준 520km 주행 (EBN)

폭스바겐은 ID.3에 이은 두 번째 순수 전기자동차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SUV인 ID.4를 공식 발표하고 글로벌 전기차 공략에 나선. 폭스바겐은 그룹에서는 2029년까지 최대 75종의 순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
<https://bit.ly/2RVQfjF>

전기차에 의류관리기·커피머신? 현대차-LG전자 협업한 '아이오닉 콘셉트 캐빈' (조선비즈)

현대차는 미래 전기차의 내부 편의시설과 사용자 경험을 보여주는 '아이오닉 콘셉트 캐빈'을 인턴트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통해 공개.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과 유사한 콘셉트카를 제작해 전시할 계획.
<https://bit.ly/363X27p>

한온시스템 전기차 수냉식 실외기 독자개발...차세대 아이오닉 탑재 (뉴스엔)

한온시스템은 전기차 수냉식 실외기 설계 기술로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힘. 해당 실외기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에 탑재될 예정.
<https://bit.ly/2GaTHso>

중국 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동향 (KOTRA해외시장뉴스)

중국은 2020년, 공신부, 상무부 등 중앙부처 주도로 자동차 소비촉진 및 인프라 확충에 나선. 5G,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친환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4580>

중국 지리, 200만km 내구성 CATL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 플랫폼 출시 (모토테일리아)

지리자동차가 다양한 모델을 보다 효율적으로 출시하기 위한 첫 번째 전기차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밝힘. 안후이자동차 베이징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SEA 아키텍처는 세단, SUV, 밴 및 픽업트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힘.
<https://bit.ly/3i2xqtI>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